

다산포럼

손학규 정계 은퇴에 대해 생각한다



김정남 언론인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애송하는 시, 이형기의 ‘낙화’ 첫 구절이다. 지난 7월 31일, 손학규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을 때 문득 이 시가 떠올랐다. 1993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영국으로 떠날 때도 나는 이 시를 떠올렸다. 우리를 앞이나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뒷모습을 보이며 쓸쓸히 떠날 때 우리는 진한 아쉬움과 함께 그에게 인간적 인연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러지 떠나는 손학규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손학규가 지난번 제1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저녁이 있는 삶’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이 수사(修辭)로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도전하는 야권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로는 너무 문학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것이 자칫 시참(詩識 : 우연히 지은 시가 뒷일과 꼭 맞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과연 그는 자신이 먼저 ‘저녁이 있는 삶’ 속으로 잠적해 버린 셈이 되었다.

틀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지난 7·30재보선에서 자신이 원하거나, 의원직을 내놓은 사람이 그에게 권한 선거구에 나간 것이 아니었다. 재정지연합의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떠맡긴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말았다. 그것이 독배인 줄 알면서도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시베리아 같은 민주당으로 올 때부터 그는 환영받지 못했고, 2008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말았던 대표직도 할 수 없이 떠맡은 독배에 다름 아니었다.

그의 은퇴 선언 소식을 들으면서, 솔직히 그만한 정치인을 이 나라 정치판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의 정치 행각이 그때마다 모두 옳았다거나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동안 제시하거나 관철한 저녁이 있는 삶, 제3의 길, 연합정부론, 협동조합기본법, 중도개혁세력의 통합론 같은 경륜과 담론을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것이 못내 허전하고 아쉽다.

지금 이 나라 이 공동체는 밖으로 남북 문제와 미·일·중·러와의 관계 등 동서남북에서 밀려오고 있는 천하 대란의 한가운

데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으로는 세월호와 윤 일병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민의 입에서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과연 이게 나라냐?”는 울분과 한탄을 듣는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정치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고, 주어진 문제들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디에서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경륜을 자신의 언어로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한 경륜은 고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밤새워 고민하거나 토론해 본 사람이나 있는지 알고 싶다. 대선 주자로 거명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저자’로 명명되는 사람들은 많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과 질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진 지 오래다. 노무현 탄핵 이후 급조된 ‘탄돌이’ 국회 이래 이명박 정권이 양산한 ‘양아치 정치인’, 박근혜 정부에 뛰어난 ‘아침배 정치인’으로 이 나라 정치권은 그 전체가 저질과 무능의 총체적 부실 집단의 되어가고 있다. 김영란법이나 세월호 특별법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그들의 정치력과 도덕성의 수준을 말해준다. 정치권 자체가 우리 공

동체의 진운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됐다. 그런 정치권에 더 이상 내일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이참에 차라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 후보를 내는 국민운동을 제창하고 싶다. 여·야 정치권이 내놓는 후보를 두고 그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게 하는 현행의 선거 제도는 수효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인데다 찍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도 차악(次惡)을 찍을 수밖에 없게 하는, 국민에게 너무도 잔인한 고문인 것이다. 나의 국민후보론은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요한 국가 의제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복수의 인물로 국민후보군을 만들어, 이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국민경선을 통해 정치권 후보에 맞서는 국민후보를 내세우자는 것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나왔던 안철수 현상은 국민후보론으로 수렴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은 긴 방황과 시행착오 끝에 길을 잃어 버리고 실종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향까지 쫓고 병든 정치권 후보 대선 국민이 직접 후보를 내는 국민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꺼져 가는 안철수 현상도 되살려 낼 수 있을 것이며 은퇴한 손학규도 다시 불러내 국민후보에 합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양동욱의 S스토리



양동욱 상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요즘 ‘썸 타다’, ‘썸 타고 싶다’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내꺼인 듯 내게 아닌 내꺼 같은 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운운을 맞춘 언어의 유행처럼 들리는 이 노래 가사 안에 관계의 혼란이 내포된 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썸(some)은 영어 단어 썸씽(something)의 준말이다. 어떤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보일 때 주위에서 흔히 ‘너희 썸씽 있지?’라고 묻는다. 그 썸씽이 무엇인지는 단어의 뜻처럼 참 모호한데, 요즘 일부 젊은이들은 그 관계의 모호함, 애매함을 즐긴다.

썸은 누군가에게 호감과 관심이 있는데 사귀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 호감과 관심이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그 단어에 붙듯이 일어나는 ‘타다’라는 동사를 결

썸(some)에 관한 단상

합하여 호감이나 관심이 가는 이성과 잘 되어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썸 타다’고 하며, 썸을 타고 있는 남녀를 ‘썸남썸녀’라고 부른다. 만남의 시작을 호감. 그 완성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사귀기로 규정한다면, 썸은 호감과 고백의 중간 여딘가에 있는, 즉 사랑이 시작되기 전 두 단계는 설렘이 있는 낭만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만남은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 내민 손을 잡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며 따뜻한 온기를 통해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 흔한 우리네 사랑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차 사랑을 느끼고, 함께 하고 싶다는 고백과 함께 상대에게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는 단계를 밟는다. 하지만 썸은 이러한 단계보다도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감정을 고착한다. 즉 낭만적 상황만을 원하는 것이다.

‘사귀자 그 애기 대가, 달콤한 말 눈빛 터치 그런 게 재미’라는 노랫말처럼, 썸은 관계가 아닌 상황에 몰두한다. 장기적 관계는 설렘의 감정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상대방과의 친밀감, 배려, 갈등, 조율, 책임감 등이 어우러지며 만남 초기의 가슴 설렘은 자연스럽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애착으로 변화한다. 썸은 누군가와

이러한 깊은 정서적 관계보다는 설렘이라는 묘한 긴장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만남이 가볍고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몰입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후보군을 만들며 문어발식 만남을 이어가기도 한다.

표면상으로 썸이라는 신조어가 터치와 즉각적인 시각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스마트폰에 걸든 젊은이들의 연애 아닌 연애 방식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이 사회에 상처받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듯하다. 흔히 요즘 젊은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라 불린다. 사회적으로 경제력 자립 시기가 지연되면서 부모로부터 주거나 가사 지원을 받는 성인 썸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와 사귀는 것은 사치이며, 혹 사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만남이 불안정한 관계가 될 것이 불 보듯 훤히에 사귀자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또 사귀자고 말했을 때 상대가 거절하게 되면 자괴감에 빠져 상처받기에 문간에 한쪽 발만 얹어놓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자기 방어막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만남에 적정선의 투자를 하며 그 만남이 왜해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썸 전략을 이용한다. 호감 가는 상대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표현하고 반응이 없으면 곧바로 포기하며, 상대가 반응하면 둘 사이의 연애 감정은 충분히 느끼고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서로 간의 책임이나 의무를 느끼지 않는 사이를 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 썸을 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상대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치고 빠지고 그 경계가 매우 유연하여 자유로운 만남을 보이지만 감정놀음에 치중할 뿐 깊은 정서적 교류를 회피하는 이들의 모습 이 슬퍼 보이는 건 왜일까.

썸 타는 사이에는 설렘과 같은 낭만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규정되지 않은 관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관계는 정이 내리라는 욕망과 관계를 정의 내리지 못하는 갈등이 공존하며 그 상황에서 상처받는 것 역시 썸을 타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책임감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어느 곳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허영없이 떠다니는 위태로운 나뭇잎처럼 가벼운 모습이다.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이다. 썸, 새로운 시대 연애 방식이라는 포장이 벗겨지면, 상처받는 것의 두려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기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문종민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

“사람이 진짜로 죽을 때는 잊혀 질 때라고 합니다. 4월 16일 세월호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절규하던 학생 대표는 이 대목에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왜 희생당한 친구들보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그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눈치 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그래서가 아닐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에는 이 세상의 모든 비정상적 실체가 집대성 되었기에 그것을 잊으면 아깝고 애먼 생명이 또 희생당할 것이기에 차라리 우리를 잊고 세월호를 기억해 달라고 어른보다 더 어른스런 말을 했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타나 무 아무래도 아이들이 의견을 나누는 내용이 생각난다. ‘죽는 것’ ‘전쟁’ ‘도깨비’ ‘귀신’ ‘지진’ 등이 무섭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누구의 의견에도 만족하지 못한 아이들은 지나가던 노인에게 물었다. 그 노인은 ‘망각’이라고 대답한다.

사람들은 망각과 용서를 하는 데에는 세월이 약이라고 말한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다 나아 수 있단니 신봉하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한숨을 토해내야 하고 눈물을 오죽 흘려야 잊힐 정도의 시간이 될까. 세월이 명약이라는 마음의 병은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되지 않던가. 활락 쏟아지는 그리움어, 문득 밀려오는 보고 품어, 또 억울함이 너무나 큰데 그 병이 쉽게 나을까? 세월이 흘렀으니 다 잊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남의 마음을 내 맘처럼 쓰려고 하는 오만일 것이다.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잊히는 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다. 어떤 작가는 ‘진짜 두려운 것은 상실이 아니라 망각이다’라고 말한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아버

지는 아들의 흔적을 지키려 하고 엄마는 지우려 하면서 나타나는 갈등과 아픔을 그린 영화가 있다. 같은 슬픔이지만 잊는 것에 대한 다른 방식을 놓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에 직면한다.

어찌된 연유인지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잊혀져야 할 사건이 지속적이고 공격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당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때만 되던 도지는 병을 앓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광주민주항쟁 등에 버금가는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결코 쉬서는 안 될 또 다른 트라우마를 이 시대 우리들에게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슬픈 상처를 안고 그저 속으로만 울어야 했다. 참고 견디고 그리고 포기하고 잊어버려야만 살 수 있는 속성이 생겼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기대어 망각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그리워하면 만나게 되고, 몸부림치고 양탈을 부리면 돌아올 수 있으며, 순제 미워하면 진정으로 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지적의 수면 아래 갇혀 있는 희생자를 아직도 인양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승객을 버린 선장의 ‘잘못 없다’는 법정 진술 앞에 그들은 차라리 그가 광대하기를 원한다. 무망(無望)하지만 탈을 벗겨내고 두꺼운 그의 낫과 시커먼 양심을 헤집어 진실을 엮고 그 답을 찾길 찾고 싶었기에 말이다.

이렇듯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망각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잊히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세월호 참극이 ‘망각의 균’에 감염되게 해서 안 된다. 세월이 흐르면 잊되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하고, 용서하되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오늘이어서는 안 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야만 했던 어제어서는 안 된다. 속더라도 임무를 수행하며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이 넘쳐나는 오늘이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목숨을 바칠만한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는 오늘이어야 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외치고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자사고 사라진 광주, 인재 유출 우려된다

광주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사실상 사라졌다. 송원고는 신입생 선발 때 성적 제한이 없어져 ‘무늬만’ 자사고로 남았고 승덕고는 아예 자사고 지정을 반납했기 때문이다. 학생 선발권 축소를 무기로 한 광주시교육청의 일방통행 압박에 2곳 모두 백기 투항한 셈이다. 광주 승덕고는 지난 16일 자사고 지정을 철회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학부모 총회와 이사회에서 ‘자사고 폐지’라는 시교육청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내년 재평가 때도 어차피 지정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미리 일반고 전환을 의결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승덕고가 내년 신입생 모집에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뽑겠다고 요청하자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응하지 않자 교육감 직권으로 기존 성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요강을 공고해 버렸다. 신입생 전형을 놓고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 온 송원고도 지난 14일 ‘내신 성적 상위 30%’ 규정을 폐지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자사고의 메리트인 성적 제한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고나 다를 게 없어진 셈이다. 지역 교육계는 자사고 폐지로 우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실력은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두 곳의 자사고가 그동안 최상위 학생들의 역할 유출을 상당 부분 막는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젠 그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에서는 중학교 상위 5% 이내 최우수 인재 120명여가량이 매년 고교 진학 과정에서 다른 지역 자사고와 특목고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막고 ‘실력 광주’의 옛 명성을 유지하려면 일반고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학력 제고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혁신은커녕 갈 길 못 찾는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참패로 기로에 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앞길이 막막하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 놓고도 당내 강경파와 당 밖의 강경론에 떠밀려 여야 합의를 꾀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분회의를 열어서 경제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의 뜻을 거스르며 다른 법안만 처리할 수 없다면서 세월호법 협상이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원내파들 간의 협상은 어찌도 결렬됐다. 이 때문에 국회는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혁신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오는 20일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던 ‘국민공감혁신위원회’ 구성도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위원회에 참여할 참신한 인사를 찾고 있지만 인물난으로 그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의

무매를 맞았다. 따끔한 지적도 많았다. ‘계파주의’와 ‘기억상실증’이 대표적이다. 김일태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집단 기억력은 유효기간이 2주다”라고 꼬집었다. 그 기간엔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2주가 지나면 결국엔 계파간 담판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결국 계파를 초월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혁신위 구성이다. 그나마 당이 회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려면 계파에 얽매이지 않은 혁신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만일 혁신위마저 당내 소그룹의 이익을 대변해 계파별로 채운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시작하기도 전에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아직도 학생 운동권 시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일부 미래의 달빛은 현재에 휘둘러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국민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번엔 구태를 벗지 못하면 정말 갈망이 없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無 等 鼓

사회 지도층 가운데는 자식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례가 의외로 많다. 2007년 4월말, 전국은 한 대기업 총수의 보복 폭행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맞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복수를 위해 가해자들을 붙잡아다 청계산에서 직접 쇠파이프로 보복 폭행한 것이다. 범부(凡夫)들도 차마 하지 못했을 악행을 사회지도층인 대기업 총수가 저질렀다는 사실에 사회는 충격을 빼졌고 비난이 쇄도했다. 김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징역 1년6개월이란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자식 때문에 수난을 당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정 후보의 막내 아들이 트위터에 “대통령에게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불세례한다. 국민이 미개하니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라고 올렸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일명 ‘국민 미개’ 발언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정 후보는 박원순 후보에게 완패를 당했다.

얼마 후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여유 있게 1위를 달리던 고승덕 변호사

가 낭패를 봐야 했다. “자식의 교육을 방치한 사람은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딸의 폭탄선언으로 끝내 꿈을 접고 만 것이다.

이번에는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의 한 명인 남경필 경기 도지사가 군대간 아들의 폭력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들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2007년 당시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벌그룹 회장으로서 과도한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회공공체 일원으로서 ‘화광동진’의 자세로 자신의 맘을 통해 범행을 속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나오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은 빛을 부드럽게 해 속세의 티끌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자기의 지혜와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인과 어울려 지내면서 참된 자야를 발견하라는 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소 여운바 ‘낮은 데로 임하라’는 얘기다. 전제 조건은 수선제가(修身齊家)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